

제5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 개최

위원장 “일방적 인력조정 및 개편안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



추진한다면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다함께 결의했다.

KT노동조합 전임 위원장 정책자문회의

노동조합은 산하조직 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인 10 일(목) 16 시에 KT 노동조합 전임위원장 정책자문회의를 가졌다.

이는 회사의 조직개편 추진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과거 ‘한국통신 민영화 저지 투쟁’ 등을 이끌었던 전직 위원장들의 자문을 얻고자 한 것으로 김인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날 6 대 김호선 위원장은 전임위원장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대선배 입장에서 “과거 인력조정 시기에는 조합원에 대한 안전 장치가 부족했다”며 “현재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 조합원의 감소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던 만큼 조합원께서 납득할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T 노동조합은 10 월 10 일(목) 14 시, 분당 사옥 대회의실에서 제 5 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노동조합은 김인관 위원장을 비롯, 전국 8 개 지방본부 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최근 회사의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 계획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의논했다.

김인관 위원장은 “조합이 그간 대규모 정년 퇴직으로 인한 CM 부문의 인력부족과 업무 과부하에 대한 문제를 회사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총원 없이 소수인력으로 운영하더니 결국 이러한 사태를 야기하게 됐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지정단위 업무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다고는 하나 회사가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인력조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막무가내 식으로 시행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향후 회사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직개편을 끝내